

# 내 마음의 법당 (상)

장진익 (전북 부안군 계화면)

요즘 뉴스를 보면 근대소식으로 난리다. 전방에서 총기 탈취사건이다 총기난사 사건이다 뭐다 해서 시끄럽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과거 군 생활을 떠올린다.

작은 시골마을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나에게도 힘든 눈길과 발길 그리고 바닷길을 시키지 않았다.

포에 비해 곁에 지낸 나는 대학에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 다녔다.

그런 이유로 언젠가는 군대라는 곳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를 잘 모르고 지나쳐버렸다. 결국 2001년 추운 겨울, 스물다섯이란 적지 않은 나이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 해 논산훈련소의 겨울은 내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도 추웠다. 늦게 입대해서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던 나는 나보다 어린 전우들과 반말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전입하게 되었을 때, 나의 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나이 어린 선임들의 다그침이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대에서도 나이 많은 나의 행동은 항상 눈엍가시였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선임들은 "나이 먹고 군대 오니 힘드냐? 그럼 군대 빨리 오지?" 라고 다그쳤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군대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에 겨웠다.

사람의 기가 약하면 귀신이 자주 붙는다고 하든가. 그 즈음 나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이등병 생활 6개월 동안 밤마다 기구에 놀랐다. 행정병이란 보지 자체가 잠을 많이 잘 수 없는 직적인데다가 밤새 꾸는 악몽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부족한 수면시간으로 인해 나의 눈은 항상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러한 나의 눈을 바라보는 선임들의 꾸중은 더욱 심해졌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놀리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매마른 정신세계를 어루만져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던 중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서재덕 병장이 내게 손을 내밀어 왔다.

일과가 끝날 무렵 그는 내가 근무하는 중대 행정반으로 와 시간 좀 내달라고 했다. 나는 내심 겁에 질렸다. '아! 또 집합이구'

180도 바꾸어 놓았다. "내 나이가 25살이니 조금은 나이대접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입대를 했고, 그동안 부모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았던 나약한 생활들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게 일요일마다 중대 내에 있는 절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독실한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대학시절 대불련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마침 그 당시 군대에서는 '1인 1 종교'

## 뒤늦은 군생활 적응 못해 밤마다 고생

## 선임병 소개로 군법당 다니며 안정 찾아

## 열성적 신앙생활에 군중병으로 활동

나. 이번엔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서 병장을 따라 갔다.

그러던 중 그는 평소와는 달리 부드러운 말로 내게 말을 건넸다. "너 많이 힘들지? 다 안다." 이렇게 말한 그는 담배 한 개피를 건네며 자신의 가정사와 군생활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중학교 때 모두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둘을 책임지고 키우다 나처럼 늦게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서 병장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 중대장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것 또한 나에게 충격이었다.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으니 말이다.

서 병장의 위로와 격려는 나의 군 생활을

갖기 운동을 펼쳐며 일요일마다 신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를 권했다.

이는 신앙생활을 통해 신병들의 군대 부적응을 막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 병장과 그의 만남과 이 같은 부대 분위기는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일요일마다 자발적으로 불교 행사에 참여했다. 당시 나의 종교 활동은 무슨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마음 편히 쉬 수 있는 곳, 계급장을 버리고 법우들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냄새가 배어나오는 포근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불교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림 · 문병성

서 나의 군생활은 조금씩 변해갔다. 밤새 나의 단장을 괴롭히던 악몽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악몽이 완전히 사라질 때쯤 불교라는 종교는 나에게 오랜 친구 같고, 은인 같이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게 됐다.

생활에서는 늘 활기가 가득했고,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나이 많은 신병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행정병이란 직책도 호재로 작용했다. 선임들이 없을 때나 틈이 시간 날 때 마다 독송집이나 불교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신심을 돈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짧지만 열성적이었던 나의 신앙생활은 일병 계급장을 단지 두 달 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중대의 군중병이 제대할 때가 됐는데 법사님과 군중병이 낱 후일 군중병으로 차출하고 싶다고 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중대 군중병이 된 이후로 좀더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장병들에게 불교적인 생활의 본보기가 되

기 위해 노력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은 누굴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예불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매일 법당정소를 했다. 새벽 예불을 모시는 사람이야 법사님과 나뉘었지만 정감한 마음으로 예불을 모시고 싶은 나의 발원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순간

나의 머리를 강하게 치고 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서 병장이었다. 법당 생활에 비뚤어짐을 보내고 이제는 정신적·육체적 위안을 찾았기에 중대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전우들을 까탈해 있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부러부러 중대 내무반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서병장의 관용대에는 그의 계급장과 군번 그리고 이름이 적힌 표식은 없었다. 그는 제대를 한 것이다. (계속)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겨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한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과정: ① 기초과정 ② 고급과정 ③ 맥진반 ④ 사암침술반 ⑤ 즉효요법반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차법, 침술즉효요법(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개강: 2005. 10. 4 월·화반(주·아간: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회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 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고,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한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최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편의사업부)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근무처: 본인 거주지 ●문의: 050-5244-0108

### 승광불교전통미술원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 불상  
 • 탕화  
 • 개금  
 • 원형조각  
 • 불사상담  
 • 천불삼천불  
 • 불교용품

전화 02-491-5336, 02-494-7478  
 공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손등술합장

###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없습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봉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서는 보살입니다. 대전에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참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까지도 빌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일반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러, 잇몸부름,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